

지성과 정신사의 미래자원 유교문화

이해준 | 공주대 사학과 교수¹⁾



오늘날 일부 문화비평가들 중 유교문화를 부정적으로 매도,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전근대적, 보수적, 공리공론, 비실용적, 당파성, 추상적, 관념적 등등 유교문화가 극복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보아야 할 점은 만약 유교문화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었다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정신 사조로서 과연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겠나 하는 점이다. 또 양반 선비들의 충절 행적에서 보듯 과연 목숨을 내어 던지며 환란을 자초한다든지, 도끼를 등에 지고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하는 행적은 결코 보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관념적인 것보다는 실천가이자 현실 개혁의 이론가들이기도 하였으며, 특권세력의 사회경제적 독점에 반기를 들고, 향촌의 자율성을 추구하던 양심세력이기도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시대 수백 년이 양반 중심의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충남의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은 결코 보수적·관념적이라고 평가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혁·혁신적이고 강경하여서 보수진영의 강한 견제를 받았다는 점을 대개 간과한다. 만약 조선조의 충청도 선비정신에서 올바르게 본받고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 부족하고 퇴색된 이러한 현실 비판과 개혁정신을 우선적으로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국사편찬위원, 역사문화학회 회장

되찾는 일일 것이다.

아마도 오늘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신, 지성사의 올바른 전통을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 그리고 가치 부여가 아닌가 한다. 전통은 “필요로 하는 자, 그 가치를 아는 자에 의하여 보물처럼 재활용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양반과 선비문화를 연구, 정리, 개발, 활용함에 있어 고려되거나 짚어보아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자.

유교문화는 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그 가치가 폄하, 왜곡, 굴절되었다. 오히려 유교문화는 21세기 미래 사회의 화두인 ‘지성사’와 ‘정신사’의 본질적 모습을 지닌다. 사실 우리가 잘못 인식하고 폄하해서 그렇지 조선 시기는 누가 뭐래도 ‘도덕과 지성’이 존중된 사회였다. <양반 = 선비>의 문화 수준은 적어도 현대 인문학의 수준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았다. 우선 방대한 문집의 량, 관심의 폭(문학-정치-사상 종합지식)이 그렇고, 학문 이외의 현실적 관심과 대응력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실력 집단이었다.

그런가하면 그들은 왕도(王道)·도학(道學)·성현 정치(聖賢 政治)를 추구했던 도덕집단이였다. <君子와 小人>의 격을 가르고, 비판(批判)과 공론(公論)을 통한 민의의 대변자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 실천을 중시하였다. 그런 점에서 과거 조선시대 선비의 삶은 어쩌면 오늘의 지성들에게 오히려 귀감이 될 만하다. 그들의 학문적 삶, 도덕적 실천의 삶, 사회문화적 삶, 개성과 자존심의 삶 등 제 부면에서 현대인들이 귀감을 삼고 부러워해야 할 모델들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요즘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의 타락과 참된 지성인의 부재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우리의 현재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미래를 예시할 “어른”이 없다고 걱정들이다. 그 대안과 교시를 우리는 충남의 유교문화전통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미래의 경쟁력이 될 유교문화 유산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떠한 관심과 자원 활용을 해왔을까? 비평한다면 각개 유적과 인물을 나열하는

수준, 권위적 건축물의 복원과 정비, 특히 가문 선조의 추숭이나 경쟁 모습으로 진행됨 등이 지적된다. 향교에 가도 건축구조가 주로 설명되고, 서원에 가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때로 부가되는 인물 설명은 특정 가문 선조의 영웅적 일화가 중심을 이루며, 그 유적의 유교적 가치나 문화의 올바른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크다.

그 같은 비평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① 고증과 자료 정리의 과정 미흡, 생략 ② 후손과 연고자 중심의 권위 과시형(?) 사업 ③ 대규모, 성역화, 추모 중심 논리가 아직도 강함 ④ 조경, 건축 외형 중심의 유적 복원 (H/W 중심) ⑤ 효율적 활용과 자원화의 아이디어 창출 노력 부족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아이들은 흥미를 잃고 유교문화 유적에 무관심하게 되며, 현대적 가치를 인정받고 재생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권위적인 건축물 중심, 가문 중심의 유교문화 확산은 유교문화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양반-선비문화의 정신사적 유적들은 다른 “유형적” 문화자원보다도 훨씬 “내면적 특징과 지성적 품위”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문화·정신적인 부면에서 미래의 중요한 문화가치가 될 수 있다. 학문과 학자를 대우하며, 자기 수양의 정신자세 및 도의와 염치를 알고 도덕을 몸으로 실천하는 선비(유교)문화는 과거에도 의미가 있었지만 오히려 학문토론, 사회교육, 비판과 실천 등이 강조되는 현대와 미래사회에 더욱 필요한 핵심 덕목으로 더욱 중시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점을 충남의 문화관광 정책에서는 직시하고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유교문화는 다른 문화와 달리 인물과 사상, 정신, 학문, 그리고 가치관을 중시하는 문화이다. 서원이나 향교, 고택의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생활했던 사람과 그들의 정신이 핵심이며,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개발할 유교문화의 대상·범위·유형도 유교적 인물의 사상, 저술을 비롯하여 조선시대의 교육, 제례, 경제, 생활문화, 유적, 유물 등이 망라되는 종합적인 것이기를 기대한다.